

# 고흥군, 농산물 가치 일깨우는 스마트팜 체험행사

### 드림스타트 아동 30명 초청해 농산물 수확체험 기회 제공

### “다양한 교육과 함께 농업 공익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

고흥군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4월 22일 드림스타트 아동 30명을 고흥스마트팜혁신센터로 초청해 아이들에게 스마트팜 체험 기회를 선물했다.

앞서 스마트팜 전남 3기 교육생들은 이번 행사에 앞서 보육온실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1,750kg을 10회에 걸쳐 관내 아동 돌봄 기관과 복지시설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왔다.

이번에는 단순 농산물 나눔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농산물을 직접 수확·체험하며 농산물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스마트팜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은 최신식 스마트팜 시설을 견학하고,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한 농

작물의 재배방법과 농작물의 성장과정을 배우며 우리 농산물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청년 보육생들이 온실에서 재배하는 딸기, 멜론, 토마토를 직접 수확하고 맛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팜 체험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며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청년 보육생들과 함께 체험농장 운영 등 6차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광양시, 천만 글로벌 관광 실현 위해 머리 맞댄다

### 5월 3일 오후 2시 ‘광양관광 활성화 포럼’

광양시가 천만 관광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광양예술창고 소교동B에서 최고, 최대, 최다 3최 원칙하에 글로벌 관광활성화 실현을 위한 관광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양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관광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시민, 관계공무원 등 각계각층 100여 명이 참석해 광양 관광 활성화 전략을 고민한다.

이날 포럼은 ▲국토연구원 김명수 선임연구위원의 ‘광양관광 활성화 랜드마크 조성’ ▲여영숙 한국관광연구학회 부회장의 ‘지역관광정책의 전략과 방향’ ▲손민영 청암대 교수의 ‘광양관광 개선 및 민관협력방안’ 순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여영숙 한국관광연구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지효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 조정란 순천대교수, 홍봉기 광양학연구소장, 오성근 광양관광진흥위원회 부위원장, 정희기 광양시의회 의원 등 유수의 관광전문가들과 지역 대표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귀식 광양시관광협의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관광 육성을 위한 관광정책의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고, 랜드마크형 인프라 확충 및 민관협력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 순천시 “로봇도 순천하세요”...잇단 공모 선정

### 로봇융합비즈니스·로봇창의교육 선정 쾌거

로봇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포용하려는 순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로봇 사업 2건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3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MZ세대(1985~2010년생)가 유망하다고 보는 미래산업은 AI·로봇인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는 5~10년 후 국내 산업을 선도할 유망산업으로 ‘AI·로봇’(30%), ‘반도체’(19.2%), ‘이차전지’(11.1%), ‘콘텐츠산업’(7.3%), ‘제약·바이오’(6.4%)를 차례로 꼽았다.

올해 선정된 순천시의 로봇사업은 서비스 플랫폼 개발사업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과 50인 미만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로봇창의교육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이다.

2건의 사업에 나란히 선정된 시는 공모사업을 동력으로 로봇 교육기업을 선택 집중·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향후 순천시만의 차별화된 ‘로봇 선도도시’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로봇으로 지역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2022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정서지지 프로그램이 탑재된 ‘순봇’을 개발한 데 이어 로봇세미나, 순봇아카데미, 순봇 체험회를 진행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여수시 “산단 안전 모두가 힘 모아야” 안전문화 캠페인

여수시는 4월27일 오전 국가산단 내 ㈜LG 화학 용성 2단지 정문에서 ‘여수산단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등이 참여했다.

특히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 7시부터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참여자들은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힘썼다.

캠페인 동참에 나선 정기명 여수시장은 “안전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안전한 산단 만들기’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 보성군, 플럼코트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보성군은 지난 4월26일 농촌진흥청 현장 기술 지원단과 함께 플럼코트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플럼코트 단지에서 반복 제기되는 집단 영농 애로사항을 사전 파악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플럼코트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 교육으로는 △플럼코트 개화기 저온 수정 불량 대책, △비대 관리 요령, △상품과(果) 증대 기술, △병해충 관리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현장 컨설팅에서는 생산량 증대를 위한 △수형 관리 요령, △도양 유기물 증대, △물관리 등 토양관리 방법 개선을 통한 고품질 플럼코트 생산을 위한 교육이 이뤄졌

다. 컨설팅 종료 후 참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배 관리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과 대처법을 알게 됐다는 항목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작목별 영농현장 컨설팅이 신규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라면서 “많은 농민들이 플럼코트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원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기별 영농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가 반반씩 섞인 과일이며, 플럼코트는 베타카로틴이 다른 과실에 비해 20~30배 이상 많아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보성=김덕순기자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